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4호 [루체 제25092호] 주제 104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 백두전구에서 태어난 영웅적 위훈의 불길 높이 당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력적 성과로 빛내여나가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은 미덥고 홀륭한 성과들에 의하여 활짝 있게 전진하는 린승법의 위업이다. 당 제7차 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여기 위한 총진군대오의 친한 발걸음도, 악동하는 절음으로 비약하는 사회주의의 조선의 창창한 미래도 천군만마와도 같은 청년대군의 불리는 애국충성과 혁명적기상, 비상한 전투력을 위하여 담보되고 있다.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우리 청년들이 아말로 당을 따라 끌바로, 휘차게 나아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영진대오의 앞장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백두전구들이 높이 발휘한 불굴의 기개와 전투적인 일본색, 혁명적이고 탁월적인 생활기풍은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청년돌격대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그들처럼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냉파 선군조선의 기상이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양세계 준비시키자면 청년교양을 끌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격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사소한 단포와 차운도 없이 청년교양사업을 더욱 창신하게, 생기발랄하게 전투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청년들을 강화하기 단련시키고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

들로 기울 사상단련의 용광로, 가장 홀륭한 청년학교이다. 백두지역에 탈리나온 모든 청년들이 처음부터 쇠소리를 듣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 떠나온 초소와 일터로 서로 다르고 정신유체적

준비도 떳떳지 않은 스스로 «백두전구대학생»이라는

파장을 만들고 베일, 매시각마다 청년

교양을 끌어올리고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 떠나온 초소와 일터로 서로 다르고 정신유체적

준비도 떳떳지 않은 스스로 «백두전구대학생»이라는

파장을 만들고 베일, 매시각마다 청년

교양을 끌어올리고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 떠나온 초소와 일터로 서로 다르고 정신유체적

준비도 떳떳지 않은 스스로 «백두전구대학생»이라는

파장을 만들고 베일, 매시각마다 청년

교양을 끌어올리고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 떠나온 초소와 일터로 서로 다르고 정신유체적

준비도 떳떳지 않은 스스로 «백두전구대학생»이라는

파장을 만들고 베일, 매시각마다 청년

교양을 끌어올리고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 떠나온 초소와 일터로 서로 다르고 정신유체적

준비도 떳떳지 않은 스스로 «백두전구대학생»이라는

파장을 만들고 베일, 매시각마다 청년

교양을 끌어올리고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 떠나온 초소와 일터로 서로 다르고 정신유체적

준비도 떳떳지 않은 스스로 «백두전구대학생»이라는

파장을 만들고 베일, 매시각마다 청년

교양을 끌어올리고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청년교양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 떠나온 초소와 일터로 서로 다르고 정신유체적

준비도 떳떳지 않은 스스로 «백두전구대학생»이라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근로자들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훌륭한 국방정의 피와 땀이 얼미나고 고기인가를 심장깊이 새기고 백두청춘들의 모범을 본받아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여 애야 한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우는 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청년교양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이다.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를 강화하는 최대의 중대사이며 혁명의 전략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개척기부여 청년문제를 민족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연세나 청년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다. 당의 혁명한 행도밀이 청년교양사업이 끌임없이 심화됨으로써 청년교양운동은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였다.

우리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청년전위라는 깊높은 영예를 빛내여 청년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쳐나가며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을, 힘풀은 속도로 대오의 전군으로 열어나가는 척후대라는것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당의

# 우리스러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길이 진행

##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길이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으로 돌아가 위하여는 인민대중제일주주의를 존중방식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의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대원들이 일관한 혁명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나게 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주의를 위하여 멀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혁명령도는 이 땅우에 천만군민이 당을 운명의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대회복을 펼쳐놓고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무기로 전투력을 향상시켜 당의 영도력을 확장시키며 당의 일정일제를 당의 일정일제로 펼쳐놓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루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 의 길을 밝혀 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현영도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주의 혁사는 천년만년 범람없이 이어질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을 둘로 둘로 나누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지향하는 우대한 어머니당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체를 밝히시고 한생생한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밟았을 때로도 일원히 인민대중제일주주의 성스러운 혁사를 수놓아온것이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사적연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70년 혁사들을 짐데에 끌어내는 불멸의 인민대중제일주주의당이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사 초급당비서 회장을 토론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인

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원칙으로, 종래방식으로 삼고 곧바로 나아가는것이야말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영도력을 확장시키며 당의 혁명령도를 펼쳐놓아 백두에

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루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

의 길을 밝혀 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현영도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주의 혁사는 천년만년 범람없이 이어질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을 둘로 둘로 나누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지향하는 우대한 어머니당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둘로 둘로 나누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우고 인민의 혁신력을 발휘하여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우리 당의 일원이다.

혁명령도의 전기한 우리 당은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딪힐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인민의 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에게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모든것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지침이다.

인민들의 애정과 밀접으로 풀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둘러나주는 것을 우리 당의 혁명현령 70년 혁사의 고귀한 풍화이다.

우리당은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직화하고 인민의 정치적성과를 통하여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우리 당의 일원이다.

우리당은 혁명 현령으로써 인민에게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모든것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지침이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르고 악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끝없이 나아가는 천군만마와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다.

인민에 대한 멀사복무에서 궁지와

있기 때문이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르고 악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끝없이 나아가는 천군만마와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다.

인민에 대한 멀사복무에서 궁지와

있기 때문이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르고 악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끝없이 나아가는 천군만마와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다.

인민에 대한 멀사복무에서 궁지와

있기 때문이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두는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두는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두는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두는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두는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두는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왔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탑보를

모두는 혁명령도에 헌신하고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

키는것을 제일중시로 내세운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선군을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불폐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뿐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리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청년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



# 최대 속도로 최고의 문명을 창조한 선군조선의 기적

##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의

## 나날을 더듬어

포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인민이 향유하는 최고의 문명세계가 펼쳐졌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지가 그대로 응축된 된 곳에 빠져나온 미래과학자거리가 솟아올라온 나라에 부강번영 할 때에 대한 신심과 애국의 정신을 힘 있게 심어주고 있다.

불과 1년동안에 사회주의선경 거리가 단숨에 일떠선 이 경이적인 현실은 조국청사에 낮날 역사의 기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땀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워업이며 나라이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 위대한 인민사랑의 기념비

침울으로 악동하는 내 조국의 뼈찬 승경이 우리 국력을 또 다시 활화산마냥 더쳐올렸다.

세인을 놀라우며 단숨에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

사회주의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꽂혀나는 시대에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통치수려한 대동강호안을 따라 조화롭게 일어난 수천세대의 조고총살립집들과 뚝음식 살립집들은 외벽이 갖가지 색티일로 마감되고 지붕형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되어 화려한 천연색 거리의 웅자를 한껏 드러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을 훨씬 훨씬 한폭의 그림마냥 안겨운다.

어찌 그뿐이랴.

몇들어지게 일떠선 현대적인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화려한 봉사당들, 이제롭게 꾸려진 허숙처와 공원들…

참으로 우리 당의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판이 확고히 구현된 미래과학자거리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뿐만 아니라 모든 경지에 이르는 원수님의 정신이다.

1년도 아닌 1년동안에 이런 회한한 문명의 세계가 현실로 펼쳐지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던가. 우리 당이 문명의 표대로 새내음을 휘황한 설계도를 떠나 오늘의 전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민이 리용할 건축물들은 시대를 대표하고 문명국의 표본이

당장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한 경지동적인 시기에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 올린 대동강변에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부모방, 부부방과 자식방, 부엌이 손색없이 꾸려져 고급가구 짜짐없이 갖추어진 것이다.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건축이다.

우리 당의 과학증시, 인재증시

사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미래과학자거리는 명실공히 어머니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준 크나큰 선물이고 열렬한 사랑이다.

거창한 시대정신창조의 격류 속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오늘뿐 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어떤

애국의 고귀한 경정체가 단숨에 솟구쳐올랐는가를 궁금이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봄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하나

하나 보이주시고 최상의 수준에

온 완성시켜 주신 공공건물과

봉사시설성당은 무려 150

여에게 달한다. 그 모든 건설대

세대로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기념비로 세워줄 레는 이 세상

의 거울에 이르기까지 내부형

성안들을 보아주신 사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신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해 그렇듯 옥을 달고 벼를

세기듯 완성시켜 주신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고 궁궐같은 초고층살립집들과 창광장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원수님의

뜻과 함께 일떠선 미래과학자

거리는 원수님의 뜻과 함께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한 구상을

암으로서 고거리를 품은 『미래

과학자거리』로 명예해 주신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

명세계가 절차를 통해

# 태양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태권도모국의 영예 끝없이 빛나리

## 승고한 애국의 결정체—민족의 정통무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권도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무술인 한 형식이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좋은 체육종목입니다.』

태권도는 우리 인민의 냉파 기상, 술기가 깊어지는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이다.

태권도가 뿌리를 두고 있는 수박회와 백전 등은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오늘정부에서 민족무도를 만들면 조선사람의 냉파 습기를 멀칠 뜻을 풀고 있던 전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은 1955년 4월 1일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를 태권도라고 명명하고 1966년 3월에는 국제태권도연맹을 창설하였다. 허나 그 씨앗이 물려 뿐내 못은 그 어떤 도움도 없었다. 오히려 남조선집권세력은 태권도를 자기들의 더러운 독재권력의 침략을 유지하기 위한 치세점으로, 폭압도구로 전락시키려고 악랄하게 획책하였다.

오직 그를 떠나고 물어주고 태권도의 참모습을 찾아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수십년전 최홍희선생이 조국을 방문하

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종재로 있으면서 국제태권도 런평을 세계적의 기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려이라고. 우리는 선생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드리게 교시하시였다.

국과 해외에서 뛰어난 품질 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자신을 이국지사로 놓이 평가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최홍희선생은 끝이 모르는 결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을 경축하여 진행된 철단체조

에서 태권도종목이 철체자자 선수들로

박수를 쳐주면서 다른 나라 국가수반을 비롯한 고위 관료님들에게 최홍희선생을

『태권도대장』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차

랑스럽게 내세워주었다. 블란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

를 대중화, 생활화하여 태권도모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온 나라에 태권도 열풍을 일으켜나가도록 구체적인 가르침

을 짜이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오늘정부에서 민족무도를 만들면 조선사람의 냉파 습기를 멀칠 뜻을 풀고 있던 전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은 1955년 4월 1일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를 태권도라고 명명하고 1966년 3월에는 국제태권도연맹을 창설하였다. 허나 그 씨앗이 물려 뿐내 못은 그 어떤 도움도 없었다. 오히려 남조선집권세력은 태권도를 자기들의 더러운 독재권력의 침략을 유지하기 위한 치세점으로, 폭압도구로 전락시키려고 악랄하게 획책하였다.

오직 그를 떠나고 물어주고 태권도의 참모습을 찾아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수십년전 최홍희선생이 조국을 방문하

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종재로 있으면서 국제태권도 런평을 세계적의 기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려라고. 우리는 선생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드리게 교시하시였다.

국과 해외에서 뛰어난 품질 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자신을 이국지사로 놓이 평가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최홍희선

생은 끝이 모르는 결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13차 세계 청

년 학생축전을 경축하여 진행된 철단체조

에서 태권도종목이 철체자자 선수들로

박수를 쳐주면서 다른 나라 국가수반을 비롯한 고위 관료님들에게 최홍희선생을

『태권도대장』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차

랑스럽게 내세워주었다. 블란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

를 대중화, 생활화하여 태권도모국의 존

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온 나라에 태권도 열풍을 일으키는가도록 구체적인 가르침

을 짜이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이어 계승되며 끊임이 끊임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면 역사의 풍파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했던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가 어떻게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었고 오늘처럼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남길없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태권도는 오랜 역사기간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단련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의 벽화와 옥 문현인 『무에도보통지』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역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내며 대를

#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이 발표된지 적지 않은 시일이 흘러갔다.

여론들은 조선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이 하루빨리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는데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을 몹시 실망케 하고 있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응용나울 대신 미국에서는 빌어들여 소리만 나오고 있던 때이다.

전 남조선침공 미군사령관들이 저마나서서 빌어들여 소리를 들는 사람들은 하여금 아연함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라고 하는가 하면 북조선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놓는다는 걸 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을 택하였다.

정전협정이 제재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대체수분체를 허의하게 되어 있다.

전쟁의 종포성이 멎으면 교전당사자들이 예상대로 판례를 해소하고 판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적 원칙으로 국제판례로 되고 있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제재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들을 내놓고 꾸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은 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을 택하였다.

정전협정이 제재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에 기인된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격화의 악순환과정은 계속되고 정세가 전쟁경계에 치닫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은 명색으로 남아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써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조선반도정세가 향후적으로 일

본원인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제작적인 거부감과 병적인 적대시정책에 있다.

지금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학교로 조선반도 유산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있다.

정전협정에는 이 협정체결후 3개 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대체수분체를 허의하게 되어 있다. 전쟁의 종포성이 멎으면 교전당사자들이 예상대로 판례를 해소하고 판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적 원칙으로 국제판례로 되고 있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제재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들을 내놓고 꾸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은 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을 택하였다.

정전협정이 제재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에 기인된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격화의 악순환과정은 계속되고 정세가 전쟁경계에 치닫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은 명색으로 남아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써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조선반도정세가 향후적으로 일

로 도전하였다.

정전협정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 대체수분체를 허의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1948년 무

장간 철선 『루에 불로』 호사건, 19

69년 『EC-121』 대형 간첩비행기 사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 사건에는 해무기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편대를 비무장지대 린근상공까지 들이밀어 세계가 핵공포 속에 빠져들게 하였다.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 달에 한두번 남조선 상공에서 모의 폭격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오죽하면 당시 미국 내에서 까지 『핵 억제력을 구축해 놓은 것은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 놓은 것은 없어 끝임을 끊어놓은 핵 위험을 받는 나라

는 북조선뿐이다.』는 말이 윤리나

왔겠는가.

특히 미국의 부쉬 정권은 집권하

자마자 우리와는 절대로 마주치지 않으며 보상도 없다는 등

의 『3 불 원칙』이라는 것을 들고나온 조선반도 해제에 대해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들은 조미 기본합의

문, 조미 공동체무니케이션을 전부 파기해버렸다. 부쉬 행정부는 6 차례

당국의 문의 임크도 미르기 전에 그

무슨 『위조지폐설』을 날조해내면서

그 리행을 멈추지 못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수십년째 해마다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키 페리즈』,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 해시험전쟁, 해위협의 최

정으로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정전협정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 대체수분체를 허의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1948년 무장간 철선 『루에 불로』 호사건, 19

69년 『EC-121』 대형 간첩비행기 사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 사건에는 해무기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편대를 비무장지대 린근상공까지 들이밀어 세계가 핵공포 속에 빠져들게 하였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략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전장에서 교전일방인 적대국이 그것도 남의 나라 절반방

을 타고온 침략의 무리가 눈앞에

서 불장난을 벌리놓으면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통합할 수 없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략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전장에서 교전일방인 적대국이 그것도 남의 나라 절반방

을 타고온 침략의 무리가 눈앞에

주고 있다.

로씨아의 한 외교관은 조선반도에

서 평화를 광고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전협정을

제기하고 새로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제

제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로씨아의 한 외교관은 조선반도에

서 평화를 광고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전협정을

제기하고 새로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제

제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로씨아의 한 외교관은 조선반도에

서 평화를 광고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전협정을

제기하고 새로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제

제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로씨아의 한 외교관은 조선반도에

서 평화를 광고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전협정을

제기하고 새로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제

제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책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은 해당 조선반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목적입니다.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을 가중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를 금지 못한다고 하면서 마치도 지역에 대해서는 핵무기 떠들어대는 것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미군으로부터 핵무기로

를 타고온 침략의 무리가 눈앞에

서 불장난을 벌리놓으면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통합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반도에서

북한군사연습이

제기하고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그 무슨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나 전술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통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들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것이 기때문에 우려를 금지 못한다고 하면서 마치도 지역에 대해서는 핵무기 떠들어대는 것처럼 지역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지역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지역에 관심이라도 있는 들판에 감시하고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서 무력을 증강하는 것을 꺼려한다.

미국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역정세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되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확장시킨다.

미국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확장시킨다.

미국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확장시킨다.

미국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확장시킨다.